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4.(월) 10:00

5 분 자 유 발 언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의 새로운 도약)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김 상 태 의 원)

-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의 새로운 도약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김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에 건립 예정인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민선 8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 울리로 이전될 경우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구, 동구, 중구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4만 m^2 , 건축연면적 1만 6000 m^2 의 규모로 약 8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내 후보지 6곳에 대하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적정성, 접근성, 중심성과 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까지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3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은 지역 농수산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시의 경제규모와 인구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울산 전 지역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향후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면 북구는 상업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물량을 처리하는
지역 거점 유통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매시장은
그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북구는 부추, 딸기, 가자미, 미역 등
다양한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로
2022년에는 부추 생산량만 2,618톤을 기록하며
118억 4,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생산자들의 소득을 대폭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매시장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인구 유입 효과입니다.

대규모 도매시장은 그 자체로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북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북구의 경제적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울산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구는 900여 개 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경북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단순한 후보지 선정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북구의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